

역사의 고증, 조선왕조실록 납시오!

무주서 적상산 사고실록 봉안행렬·봉안식 재연

무주군 적상산 사고(史事)실록 봉안행렬 및 봉안식 재연행사가 지난 2일 무주군청과 전통테마파크 일원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무주문화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세계문화유산인 적상산 사고(史事)실록 봉안행렬과 봉안식을 기록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오후 3시부터 무주관아 실록 보관식(적상산 사고에 봉안하기 전 무주관아에 보관하는 절차 재연)과 적상산사고 실록 봉안식(적상산 사고 실록 안치 및 고유제 재연), 적상산 사고 봉안행렬(실록 환영행렬, 실록개 행렬, 실록 봉안 행렬로 구성된 적상산 사고 봉안행렬 재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맹갑상 무주문화원 원장 등 의관 및 장비 등을 모두 갖춘 행렬 인원만 150여 명이 투입됐으며 무주군민들을 비롯한 방문객 등 1천여 명이 행렬을 지켜봤다.

관객객 이모(52, 서울)씨는 "단풍놀이 왔다가 정말 귀한 구경을 하고 간다"라면서 "조선왕조실록이 무주에 보관이 됐었다는 사실도, 그 발자취가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도 너무 놀라워서 온 김에 적상산 사고지도 꼭 다녀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의 적상산사고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국보 제151호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족보인 선원록 등 5,541권이 약 300년 간 보관돼 있던 곳(사고지유구는 1992년 무주양수발전소 상부댐 건설로 수몰)으로, 복원-1995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88호 지정)에는 현재 조선왕조실록과 선원록 복본 39권이 제작, 전시돼 있으며 전시패널과 디오라마 등 총 22종의 전시물들이 설치돼 역사문화교육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적상산 사고(史事)실록 봉안행렬 및 봉안식 재연행사는 무주문화원이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한 2019년 지방문화원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1억 1천 8백여만 원의 예산 확보)되면서 진행하게 된 것으로, 무주문화원에서는 봉안행렬과 봉안식 과정을 촬영하고 설명을 담은 영상물도 제작해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무주군의 적상산사고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국보 제151호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족보인 선원록 등 5,541권이 약 300년 간 보관돼 있던 곳(사고지유구는 1992년 무주양수발전소 상부댐 건설로 수몰)으로, 복원-1995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88호 지정)에는 현재 조선왕조실록과 선원록 복본 39권이 제작, 전시돼 있으며 전시패널과 디오라마 등 총 22종의 전시물들이 설치돼 역사문화교육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보헤미안 랩소디와 함께하는 김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제18회 김제시립합창단(단장 허전 부시장) 정기연주회가 오는 7일 오후 7시 '김제시립합창단이 부르는 보헤미안 랩소디'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백동현 지휘, 박용순 반주로 한해가 지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아름다운 하모니와 선율로 평소 우리 귀에 익은 명곡 등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음악들을 준비하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연주회로 준비했다.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인 서재이가 특별 출연하며 비탄은 남풍, 아리랑 고개위의 들장미, 불가강의 뱃노래, Queen Medley 등 주옥같은 명곡으로 사랑이 가득 한 가을밤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내일부터 어진박물관 개관 9주년 기념 '태조어진 진본전시'

전주 어진박물관은 개관 9주년을 맞아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御眞) 진본을 내일부터 27일까지 전시한다고 밝혔다.

전주 한옥마을 내 경기전 경내에 자리한 어진박물관은 평소에는 모사본을 전시하지만 매년 개관일(11월 6일)에 맞춰 진본을 전시하고 있다.

태조어진은 조선 건국 후 1410년(태종 10년) 전주에 경기전을 건립하고 태조어진을 봉안했다. 이후 1872년(고종 9년) 구본이 낡아짐에 따라 새로 모사해 모셨다.

전주 경기전(慶基殿)에 봉안된 태조 어진은 현존하는 유일한 이성계의 초상화로 2012년에 국보 제317호로 승격됐다.

진본은 1872년(고종 9년)에 그린 것으로 비단에 채색한 작품이다.

또 일월오봉도(전북 유형문화재 제224호)도와 임금의 나들이 때 왕의 위험을 높이기 위해 의정대가 들고 파닥댄 의장물인 용선, 봉선도 함께 전시한다.



일월오봉도는 태조 어진을 경기전에 봉안할 때 제작된 것으로, 다른 일월오봉도와 달리 특이하게 산 양면에 폭포 그림이 없다. 어진 뒤에 펼쳐진 일월오봉 병풍은 경기전의 것이 유일하다. /뉴시스

민주시민으로써 지녀야 할 역량 위해 힘찬 발걸음

전주교대와 지역주민 간의 데이트 참신에 인문학콘서트 성황리 마쳐

국립대와 지역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주교육대학교는 최근 교사교육센터 마을연구실에서 두 번째 참·신·애 인문학콘서트를 개최하며,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민주시민으로써 지녀야 할 역량 함양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이어갔다.

전주교육대학교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발전 기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참·신·애 인문학 콘서트'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연의 주인공은 함동국 감독이다. 함동국 감독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영상 연출을 전공했으며, 한국 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을 역임하는 등 독립영화 감독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라디오 출연, 주요 기관 홍보영상 및 광고영상 연출 등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탁병주 교수(전주교대 수학교육과)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개회식, 감독과의 대화, 영화 관람, 감독과의 소통 공감의 시간 순으로 진행되었다.

'영화, 음악, 그리고 교육이 만나는 밤'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오늘 콘서트에는 함동국 감독의 2013년작인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영화가 상영되었고, 선생님의 열정과



전주교육대학교가 최근 교사교육센터 마을연구실에서 두 번째 참·신·애 인문학콘서트를 개최하며 민주시민으로써 지녀야 할 역량 함양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이어갔다.

애정이 담긴 가르침이 아이들을 얼마만큼 성장시키는지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지난 8월 29일 진행했던 1차 콘서트에 이어 오늘 진행된 2차 콘서트에서도 지역민을 포함한 많은 학부모, 학생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내빈으로 참석한 노미숙 동서학동 동장은 "지역사회와 화합하기 위해 폭넓은 문화체험이 가능한 인문학콘서트를 개최해 준 전주교육대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지자체 또한 지역민을 위해 국립대학교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마리아 평생교육원장은 "지역민의 인문학 사고, 태도나 가치를 재인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며,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실제 지역사회의 인식 및 역량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완주 공취팔쥐도서관에서 펼쳐진 '북 클래식 콘서트' 성료

새롭게 개관한 완주 공취팔쥐도서관에서 클래식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완주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 공취팔쥐도서관에서 전북혁신도시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북-클래식 콘서트 완주(명작의 재발견)'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완주군이 후원한 것으로 책을 매개로 문화·음악 통섭형 콘서트로 이뤄졌다.

문화해설에 은희경 작가, 남정미 서평가, 이재찬 음악해설가가 출연하고 리베아트센터 단원들이 클래식을 연주했다.

소개된 문학작품으로 시 부문에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김용택), '나와 나타샤

와 흰 당나귀(백석), '가을의 기도'(김현승)가 소설부문에 '별(황순원), '동백꽃'(김유정),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이다.

문학작품 낭독과 함께 쇼팽의 '녹턴 20번', 드뷔시의 '달빛', 리스트의 '사랑의 꿈' 등 유명 작곡가 음악이 연주돼 콘서트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높이고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북 혁신도시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있어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이 마련되고 있다"며 "책과 연계된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갈증 해소와 감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